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2번의 J사태가 시장에 던져준 과제

부정적 전염효과 차단이 급선무

4월 말 제이글로벌리츠(이하 소문자 j)의 기업구조조정 여파가 채 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 중앙미디어그룹(이하 대문자 J)의 주요계열사들이 기업회생 및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감에 따라 신용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전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연관성이 높은 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번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기업에 있겠지만 작년 말 이후의 금융 시장 흐름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들 수 있는 변수는 작년 말 이후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금리 상승에 따라 발행시장이 위축되었고 이자비용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나 하위등급 기업들의 경우 과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금리 메리트를 기반으로 개인들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수급적인 이점을 누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즉, 주식시장 활황 등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으로 인해 채권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채권(을 포함한 인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4월 말 j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j이슈가 불거진 직후 여타 하위등급 기업들에의 부정적 여파는 J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J의 채권들은 타 채권과 (부정적으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급기야 구조조정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렇다면 J와 j의 채권 간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개인 및 일반법인의 투자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게다가 두개의 채권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채권자들은 또 다른 하위등급 채권들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j의 구조조정에서 시작된 부정적 전염효과가 J를 거쳐 점차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기업들의 신용이슈가 불거지는 경로는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번지고 급기야 차환에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외생적 변수(금리상승, 머니무브 등) 발생에 따라 거시적 차환위험이 먼저 부각된 이후 순차적으로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자극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기업 차환의 대응이 아닌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금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위등급(특히 BBB급)채권들의 시장 기반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투기등급을 포함한) 다양한 등급 스펙트럼을 보유한 글로벌 신용평가등급 분포와 달리 국내 신용등급 분포는 투자적격등급 이상 위주의 편중된 분포구조(공모채권 기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위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BBB급 이하 등급기업들의 발행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금번 J사태로 인해 기반은 추가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신용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뉴페이스'들이 시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장에 활발히 진입하면서 시장의 하부구조를 견고하게 해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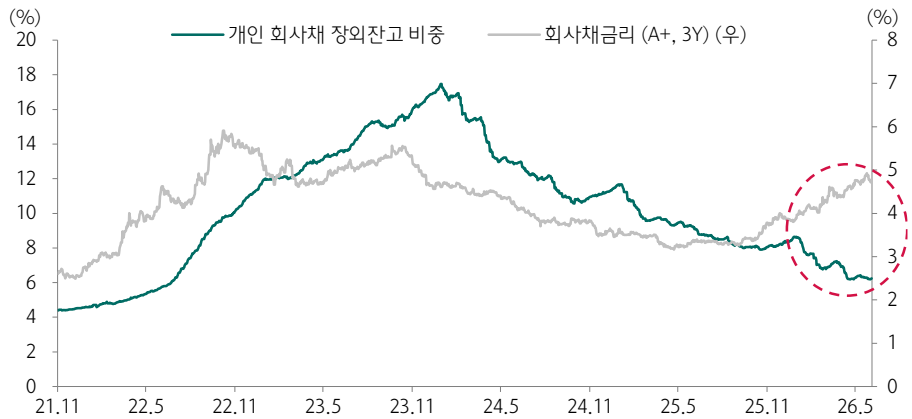
그런 관점에서 국가 신용보증기관들 주관하에 운용되고 있는 Primary CBO(이하 P-CBO)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행된 P-CBO에 편입된 기업들의 등급 분포를 보면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비중은 11~14% 내외로 높지 않다(무등급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P-CBO의 원래 특징이다). 하지만 등급을 보유한 절대기업 수로 따지면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는 64개(BBB급은 53개: '25년 기준)에 달한다.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등급 기업 수가 266개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물론 그중에는 P-CBO 외에 공모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P-CBO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P-CBO 자체도 계속 필요하겠지만 참여기업 중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유망 중견기업들이 공모발행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지난주 사태의 여파로 전반적인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크레딧 채권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하위등급과 관련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술한 바처럼 채권 보유자들이 상당 부분 겹쳐있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큰 타격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 측면에서 당분간 위험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분기말이기도 하고 단기금리 상승 등 유동성 여건이 비우호적이다. 단기적으로 시장흐름을 되돌릴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도표 1. 개인 회사채 장외잔고 비중 vs. 회사채금리(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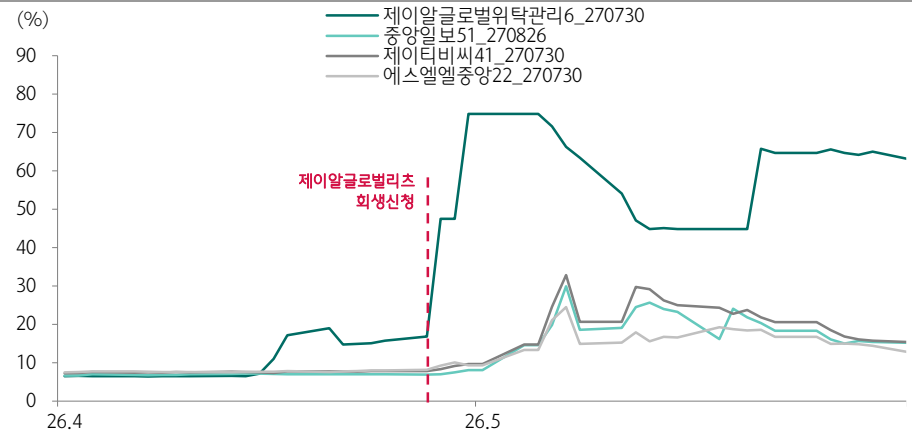
통상 개인들의 회사채 장외잔고 비중은 회사채금리와 연동되었으나 작년말 이후 괴리 주식시장활황 등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 (채권투자관심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2. 26년 2분기 크레딧 이벤트 이후 대상 채권 평균 유통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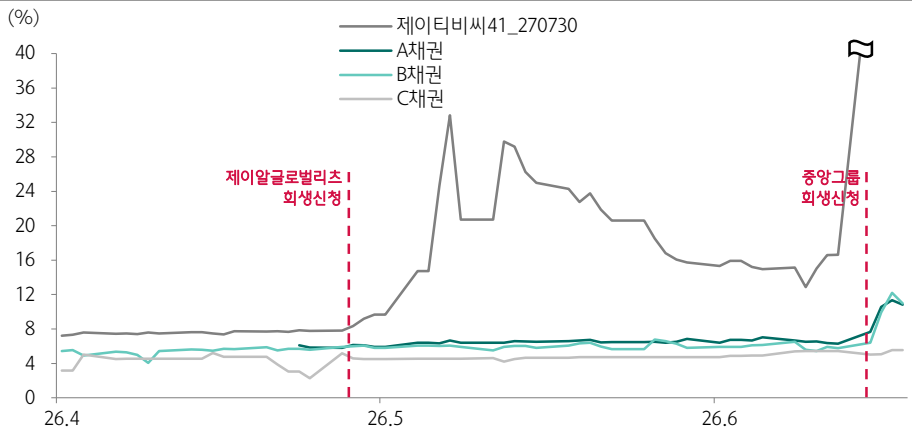
설상가상으로 4월 말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발생으로 하위등급 투자심리 저하 특히 중앙미디어그룹 계열사들의 반응이 큰 편이었음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3. 26년 2분기 크레딧 이벤트 이후 하위등급 채권 평균 유통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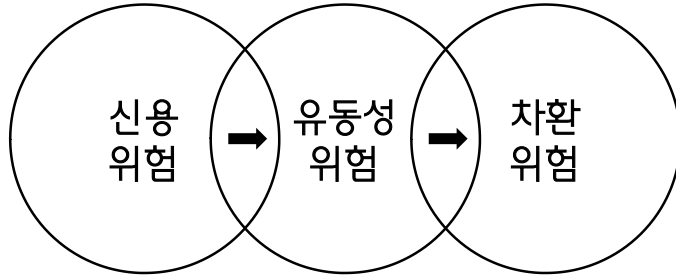
여타 하위등급사들의 경우 중앙 계열사와 달리 제이알리츠사태 발생 후에도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중앙사태 이후에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지는 양상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4. 통상적인 신용이슈(위험)의 전이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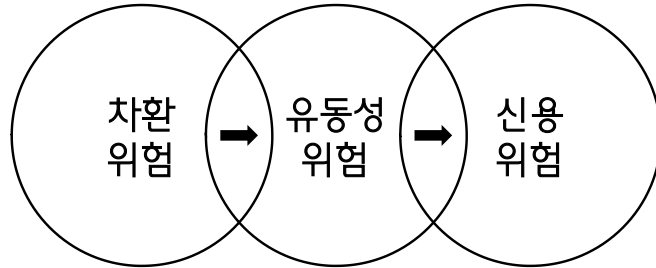
기업의 신용이슈는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전이된 이후 차환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나



자료: 하나증권

도표 5. 최근 나타나고 있는(나타날 가능성 높은) 위험의 전이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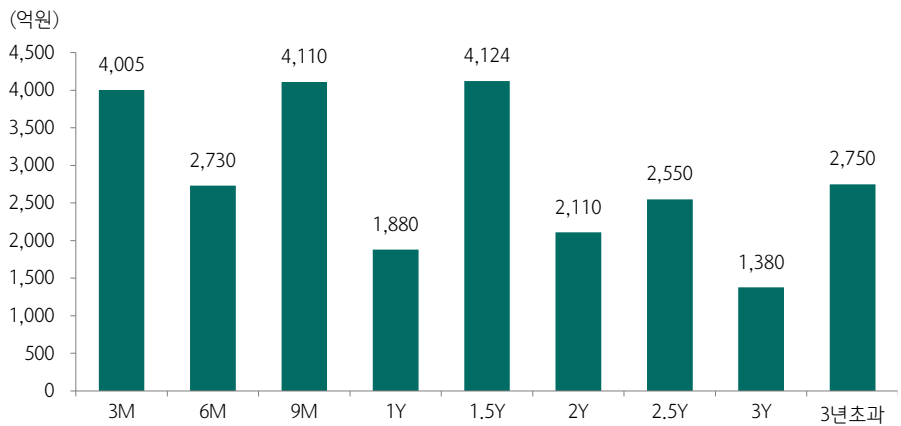
최근 하이일드 채권을 둘러싼 환경(여건)은 외생변수에 따라 차환위험이 먼저 불거지면서 개별기업의 유동성/신용위험이 부각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 내포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BBB등급(BBB+/BBB0) 채권 만기별 채권 잔존액

BBB등급 채권의 만기는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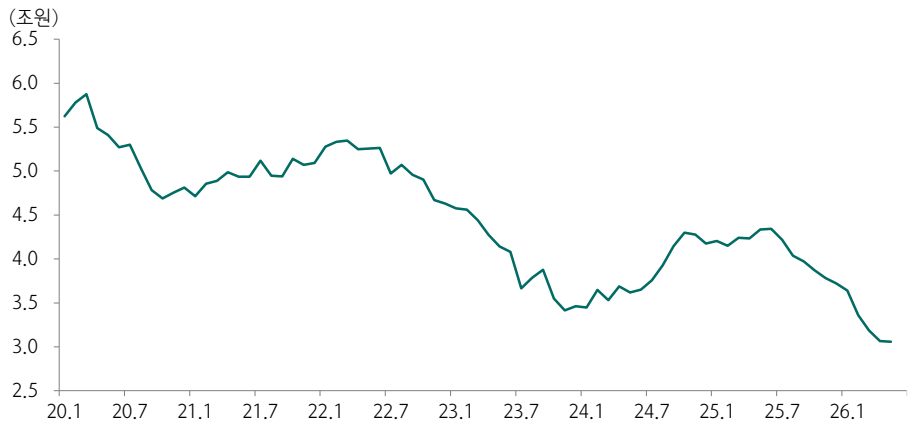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 장단기/FRN/KP 포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제외

도표 7. BBB등급(BBB+~BBB-) 무보증 회사채(일반)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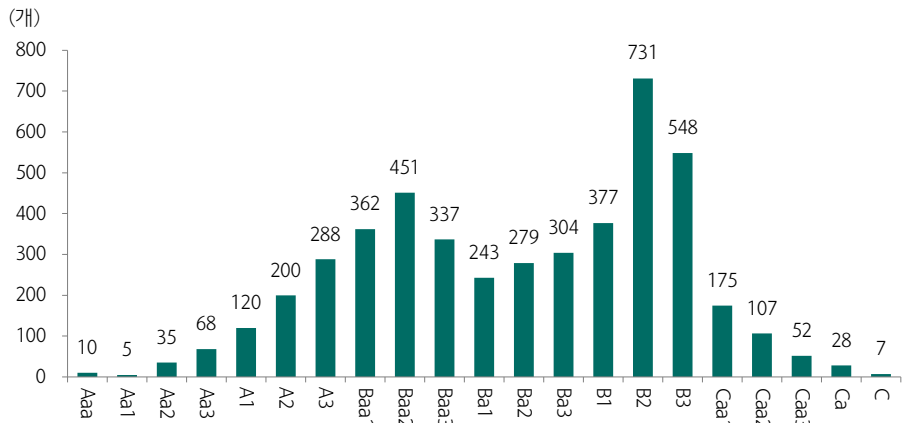
2020년 1분기 말 5.9조원에 달했던 BBB등급 일반 회사채 잔액은 지속 감소하여 2026년 5월 말 3.1조원 수준까지 축소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8. Moody's 장기채권 신용등급별 발행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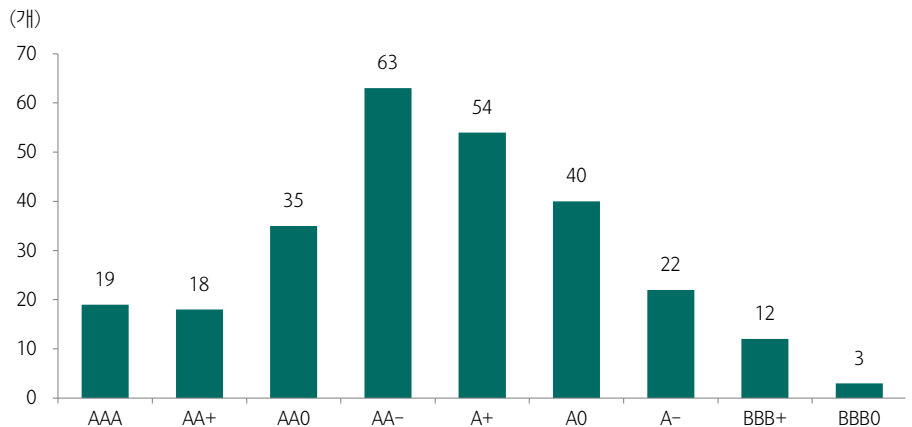
글로벌 신용평가등급 중 하이일드(Ba1이하)등급 채권 발행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자료: Moody's, 하나증권
주: '260617기준

도표 9. 국내 회사채 신용등급별 발행사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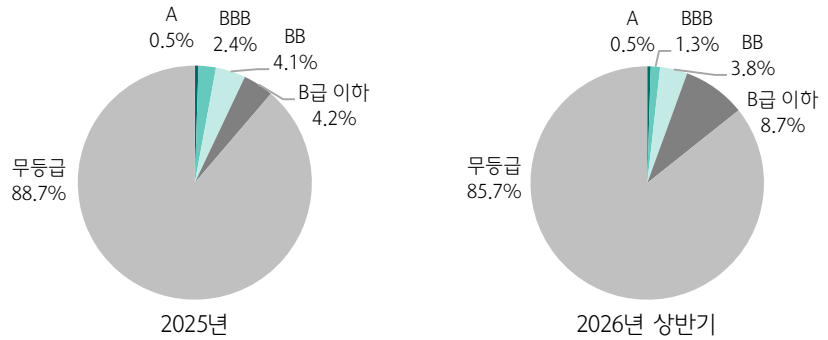
국내 신용평가등급 중 하이일드 등급(BBB이하) 발행사 개수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추세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 '260617기준

도표 10. '25년/'26년 상반기 P-CBO 구성 기업 신용등급별 비중

P-CBO 발행 Pool에서
신용등급 보유기업
(투자적격등급은 더더욱)
비중은 낮으나



자료: 금융감독원공시시스템(DART), 하나증권
주: 현시점 기준 신용등급이 아닌 발행일 시점 신용등급

도표 11. P-CBO 편입기업 신용등급별 분포수

절대 기업 수로 따지면 투자적
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
는 64개(BBB급은 53개:
'25년 기준)에 달해

신용등급	2025년	2026년 상반기
A+	-	1
A0	3	1
A-	8	2
BBB+	20	4
BBB0	21	4
BBB-	12	3
BB+	30	12
BB0	31	11
BB-	30	9
B+	89	74
B0	2	-
B-	2	-
무등급	1,953	725

자료: 금융감독원공시시스템(DART), 하나증권
주: 현시점 기준 신용등급이 아닌 발행일 시점 신용등급

크레딧스프레드 등향 및 전략

국고채금리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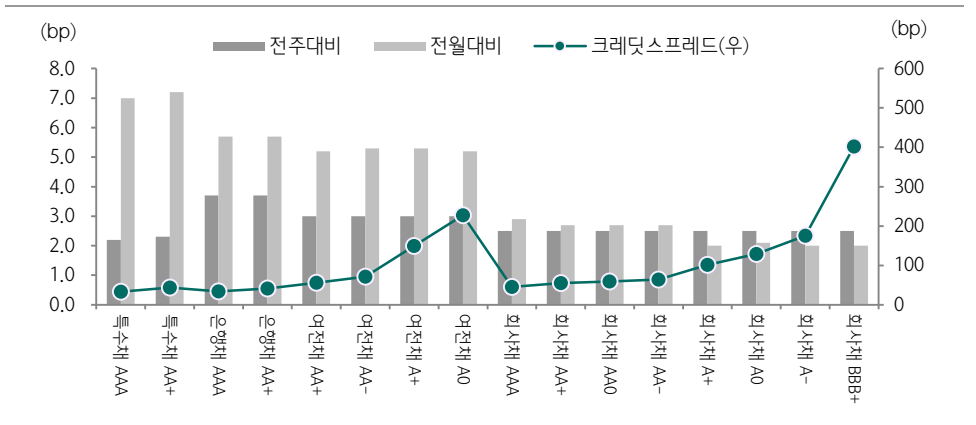
국고채금리 하락

지난주 국내 채권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완만한 강세를 보였다.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0.8bp, 2.5bp 하락하며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14일(현지시간) 미-이란 종전으로 유가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으나,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말 점도표 중앙값을 3.4%에서 3.8%로 상향하며 매파적 성격을 보였다. 대내적으로도 17일 물가안정목표 점검에서 신현송 총재가 수요 측 압력 확대에 따른 물가 상방위험을 경계하는 등, 정책 이벤트는 대체로 매파적이었다. 이에 주 초반 유가 하락을 반영해 하락했던 시장금리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파적 재료를 소화하며 상승 전환해 낙폭을 일부 되돌렸다.

신용스프레드 확대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섹터별로 뚜렷한 차별성 없이 골고루 확대세를 보였다. 만기별로는 단기 크레딧물의 공급이 확대세가 가팔라지면서 단기신용스프레드의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 또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중앙미디어그룹 주요계열사들의 기업회생신청 이슈는 크레딧 채권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앙계열채권의 시장노출도(특히 기관투자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시장 전체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표 1. 주요 크레딧 채권 스프레드 주간/월간 변동 (3년물 기준)



주: 2026.6.19 기준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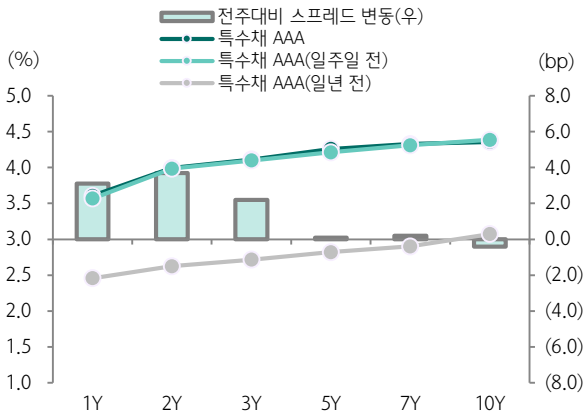
도표 2. 크레딧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단위: %, bp)

구분	금리					스프레드					스프레드 변동(WoW)					스프레드 변동(MoM)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국채	3.29	3.64	3.78	4.00	4.17	-	-	-	-	-	-9.7	-1.1	-0.8	4.7	-2.5	11.7	3.5	3.2	3.7	-0.1	
특수채	AAA	3.61	3.99	4.11	4.26	4.36	60.7	31.4	33.0	25.7	18.7	3.1	3.7	2.2	0.1	-0.4	22.8	12.6	7.0	3.9	0.1
	AA+	3.66	4.10	4.22	4.39	4.55	66.6	41.8	44.1	38.4	38.3	3.6	4.1	2.3	0.2	-0.3	23.4	12.9	7.2	3.8	0.4
은행채	AAA	3.63	3.98	4.12	4.33	4.59	62.8	29.6	34.2	32.4	42.1	3.4	4.2	3.7	1.2	-0.2	21.1	11.8	5.7	5.5	1.4
	AA+	3.68	4.06	4.20	4.40	4.67	67.7	37.6	41.3	40.0	50.2	3.5	4.2	3.7	1.3	-0.2	21.2	11.6	5.7	5.5	1.4
여전채	AA+	3.80	4.28	4.34	4.41	5.54	80.4	60.2	55.5	40.9	136.6	4.7	4.8	3.0	0.3	-0.7	22.1	13.6	5.2	2.4	-0.5
	AA-	3.88	4.39	4.49	4.68	5.93	88.6	71.3	71.2	67.4	176.2	4.7	4.6	3.0	0.2	-0.7	21.9	13.1	5.3	2.4	-0.5
	A+	4.23	4.88	5.28	5.81	6.63	123.5	119.9	149.7	181.0	245.6	4.7	4.6	3.0	0.2	-0.7	22.3	13.0	5.3	2.4	-0.5
	A0	4.90	5.63	6.05	6.47	7.05	190.3	195.3	227.0	247.1	287.6	4.7	4.6	3.0	0.3	-0.7	21.6	13.0	5.2	2.4	-0.5
회사채	AAA	3.66	4.19	4.24	4.36	4.66	66.2	51.3	45.3	35.4	49.2	5.7	3.5	2.5	0.7	-0.5	17.3	11.5	2.9	2.7	0.5
	AA+	3.75	4.26	4.33	4.45	4.95	75.4	58.3	54.8	44.7	77.6	5.7	3.5	2.5	0.8	-0.5	18.0	11.1	2.7	2.8	0.5
	AA0	3.79	4.29	4.37	4.52	5.29	78.9	61.3	58.9	51.4	111.7	5.7	3.5	2.5	0.8	-0.4	18.0	11.1	2.7	2.8	0.5
	AA-	3.82	4.34	4.42	4.62	5.65	82.4	66.3	64.0	61.6	147.9	5.7	3.5	2.5	0.7	-0.4	18.0	11.1	2.7	2.7	0.5
	A+	3.97	4.62	4.80	5.29	6.23	96.7	94.0	101.7	128.5	205.7	5.7	3.6	2.5	0.4	-0.5	17.7	10.9	2.0	2.4	0.5
	A0	4.13	4.81	5.07	5.74	6.69	112.7	112.6	129.0	173.5	251.9	5.7	3.7	2.5	0.4	-0.5	17.8	10.9	2.1	2.4	0.5
	A-	4.40	5.16	5.53	6.33	7.20	139.8	147.9	175.2	232.5	303.0	5.7	3.9	2.5	0.4	-0.4	17.8	11.2	2.0	2.4	0.5
	BBB+	5.45	7.20	7.80	8.21	8.70	245.4	351.9	401.8	420.4	453.3	5.7	4.0	2.5	0.4	-0.1	17.8	11.1	2.0	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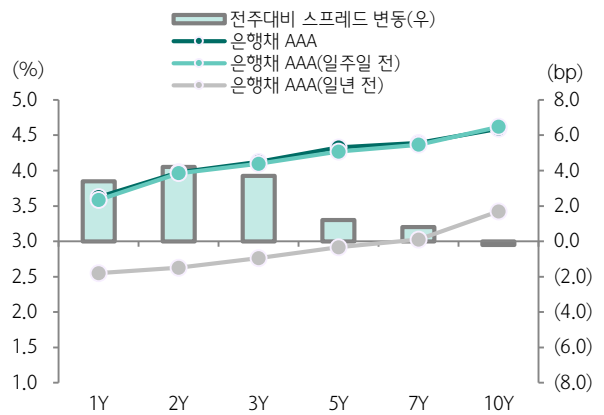
주: 1) 2026.6.19 기준, 2) 1Y, 2Y는 통안채(이표) 동월물 대비. 이외 3Y 이상은 국고채 동월물 대비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3. 특수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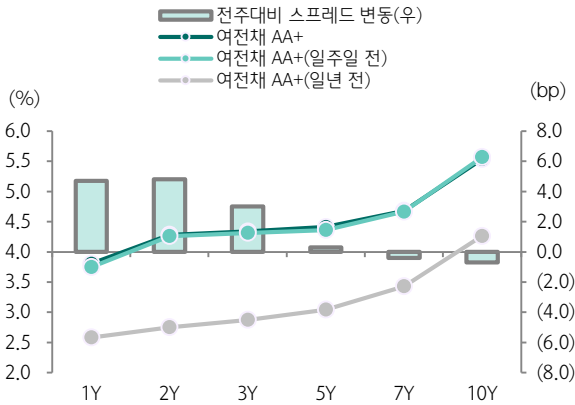
주: 2026.6.19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4. 은행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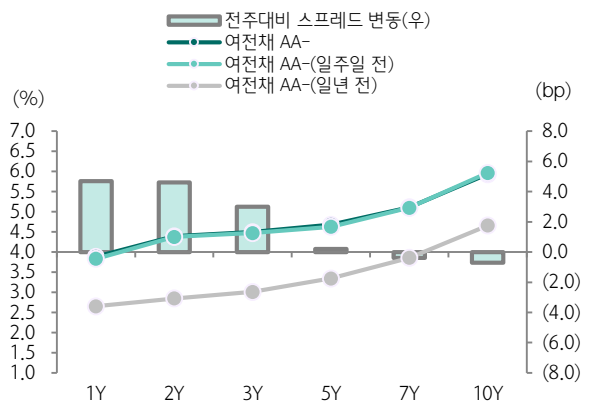
주: 2026.6.19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5.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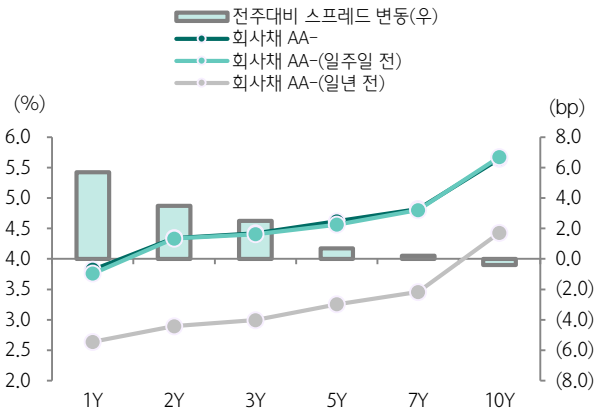
주: 2026.6.19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6.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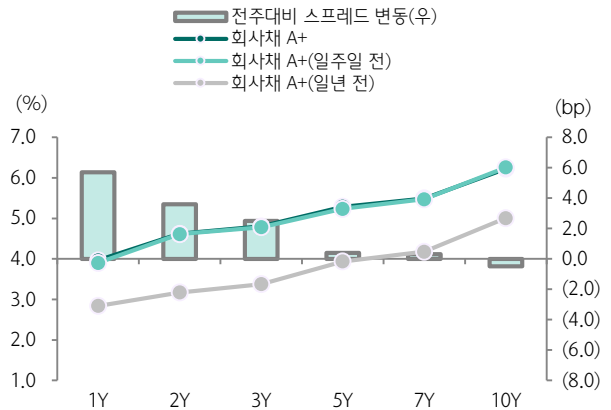
주: 2026.6.19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7. 회사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6.19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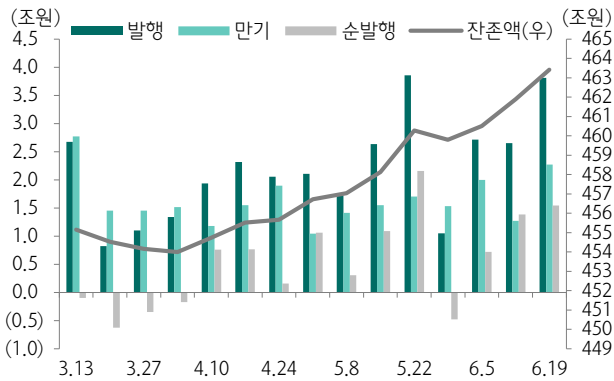
도표 8. 회사채 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6.19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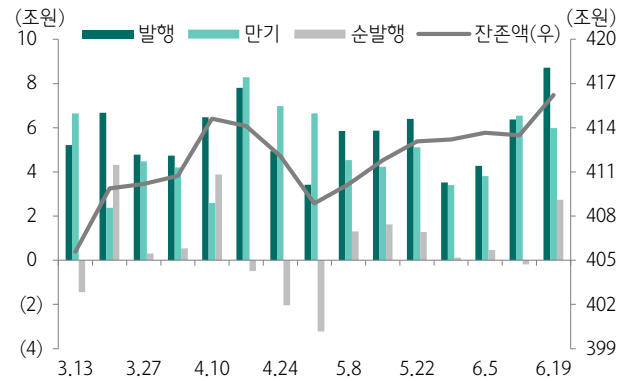
발행시장

도표 9. 특수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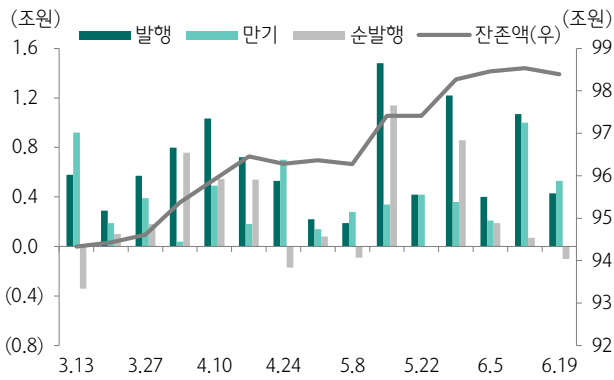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0. 은행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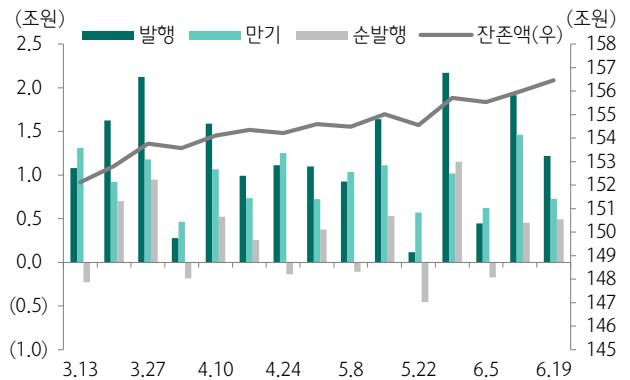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1. 카드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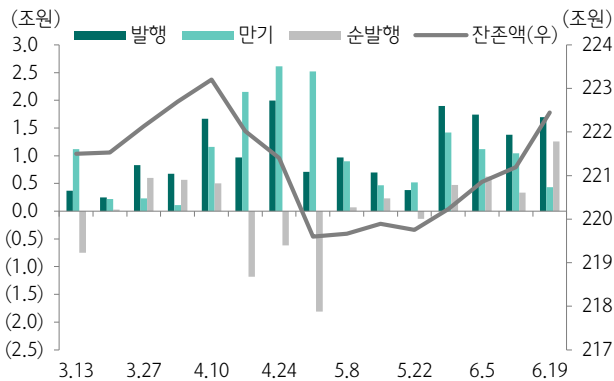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2. 캐피탈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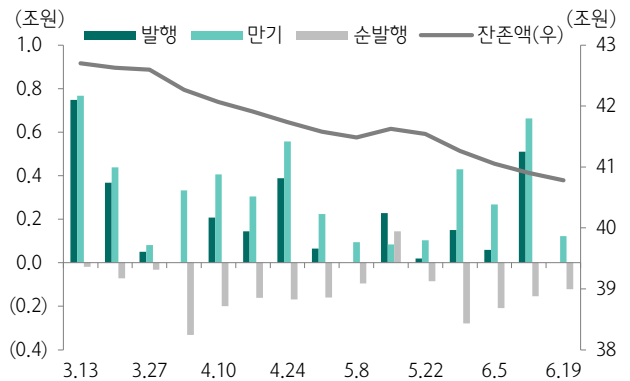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3.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4.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5.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 만기	금액		참여 금액	수요예측 경쟁률(%)	금리밴드			결정 스프 레드	사용목적
					발행	예측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6-06-17	세아제강9-1	A+	2026-06-25	2Y	750	400	1,850	4.63	개별민평	-30.0	+30.0	-1.0	채무상환
2026-06-17	세아제강9-2	A+	2026-06-25	3Y	400	400	550	1.38	개별민평	-30.0	+30.0	-5.0	채무상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주: 공란은 수요예측 결과 공시 전 / 수요예측 경쟁률은 유효수요 기준

도표 16. 이번 주 회사채 수요예측 대상 기업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발행사	회사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만기	예측금액	금리밴드			사용목적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6-06-23	호텔롯데	81-1	AA-	2026-07-01	2Y	7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23	호텔롯데	81-2	AA-	2026-07-01	3Y	3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24	종근당홀딩스	4-1	A+	2026-07-01	2Y	3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24	종근당홀딩스	4-2	A+	2026-07-01	3Y	300	개별민평	-30	30	운영자금, 채무상환
2026-06-24	한국금융지주	41-1	AA-	2026-07-02	2Y	10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24	한국금융지주	41-2	AA-	2026-07-02	3Y	10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유통시장

도표 17. 주간 회사채 유통시장 상위거래

(단위: 억원, %, bp)

종목명	신용등급	거래금액	거래일	만기일	잔존기간	민평금리	평균거래금리	평균-민평
한국항공우주산업29-1	AA-	800	2026-06-17	2028-07-04	2년6월	4.228	4.263	3.5
한화솔루션290-2	AA-	800	2026-06-16	2027-01-15	1년	3.602	3.724	12.2
신한금융지주129-2	AAA	604	2026-06-18	2029-08-27	5년	4.100	4.130	3.0
한국남동발전66-1	AAA	600	2026-06-19	2027-06-30	1년6월	3.673	3.810	13.7
연합자산관리33-2	AA0	600	2026-06-18	2028-08-29	2년6월	4.182	4.222	4.0
한국중부발전40-1	AAA	600	2026-06-17	2027-11-10	1년6월	3.862	3.899	3.7
하나금융지주43-2	AAA	600	2026-06-15	2029-08-29	5년	4.179	4.159	-2.0
현대글로벌비스1-2	AA+	521	2026-06-17	2027-02-25	1년	3.427	3.417	-1.0
KB증권47-2	AA+	500	2026-06-17	2028-05-26	2년	4.145	4.180	3.5
미래에셋증권77	AA0	500	2026-06-17	2028-06-13	2년	4.184	4.217	3.3

주: 1) 2026.6.15~2026.6.19,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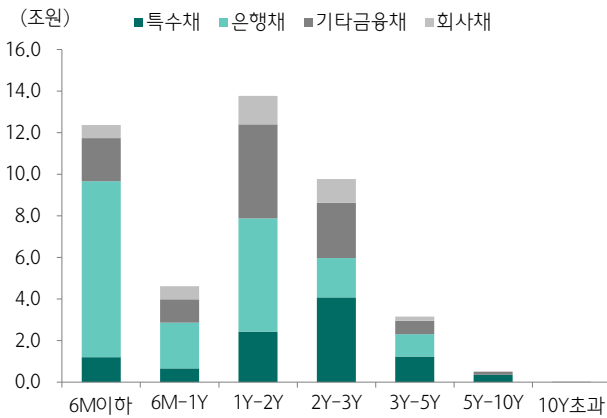
도표 18. 주간 회사채 강/약세거래 현황

(단위: 억원, bp)

강세				약세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한국투자금융지주35-2(3월)	AA-	200	-23.0	한국남동발전51-2(3월)	AAA	100	47.0
SK에너지46-3(녹)(6월)	AA0	200	-7.0	현대트랜시스46-2(1년)	AA-	400	24.6
한국남동발전66-1(1년6월)	AAA	400	-5.3	LG유플러스109-2(6월)	AA+	300	22.9
현대건설305-3(2년6월)	AA-	100	-5.0	한국남동발전72-1(1년)	AAA	300	21.2
현대건설310-3(녹)(5년)	AA-	100	-5.0	LG화학57-2(1년)	AA+	100	18.3
KT193-3(5년)	AAA	300	-4.0	에이치엘만도15-1(1년)	AA-	300	18.0
한국서부발전70-1(2년6월)	AAA	300	-3.1	LG에너지솔루션3-2(녹)(1년)	AA0	200	16.2
SK312-2(1년6월)	AA+	400	-2.7	에이치디현대중공업8-3(1년)	AA-	200	15.8
SK에코플랜트185-2(1년6월)	A-	400	-2.1	키움증권8-2(1년)	AA0	100	15.3
하나금융지주43-2(5년)	AAA	600	-2.0	엘엑스판토스3-1(1년)	AA-	200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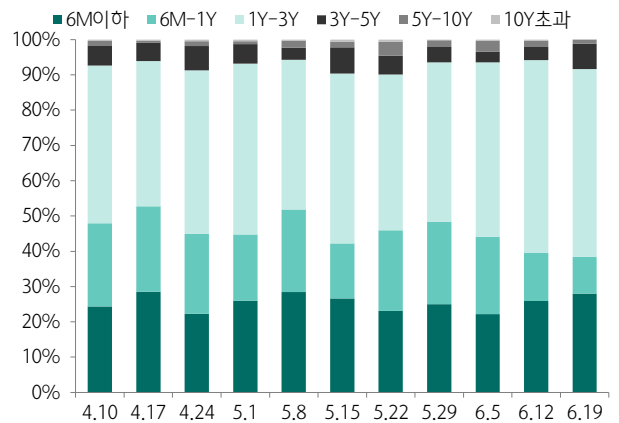
주: 1) 2026.6.15~2026.6.19,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도표 19.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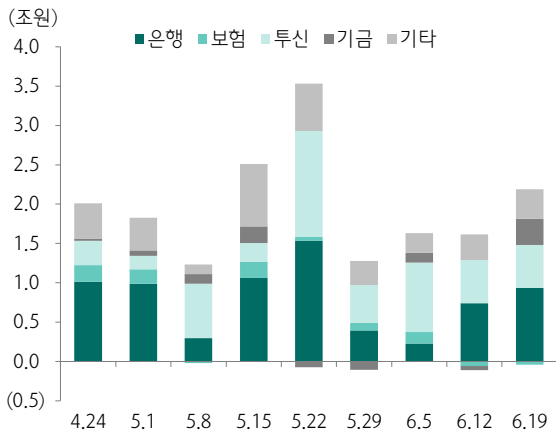
주: 2026.6.15~2026.6.19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0.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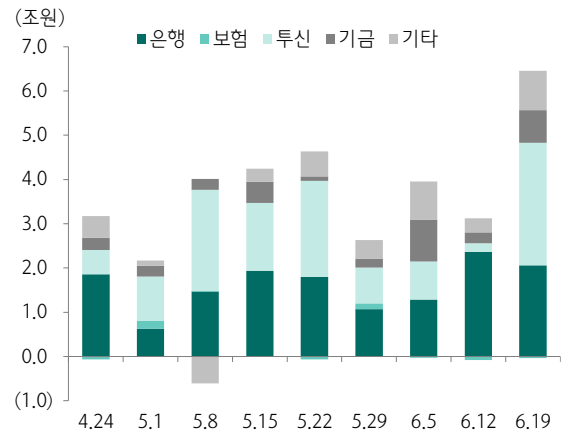
주: 주간단위(월~금) 작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1. 투자자별 특수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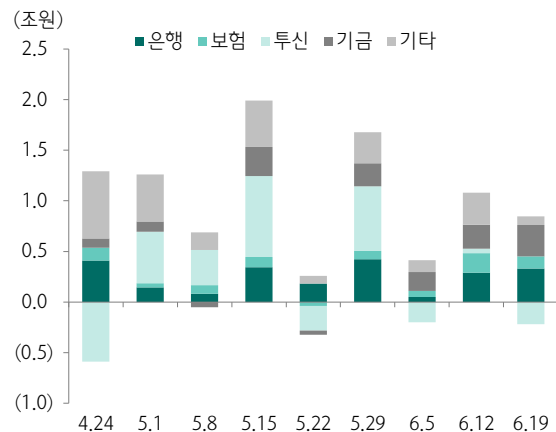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2. 투자자별 은행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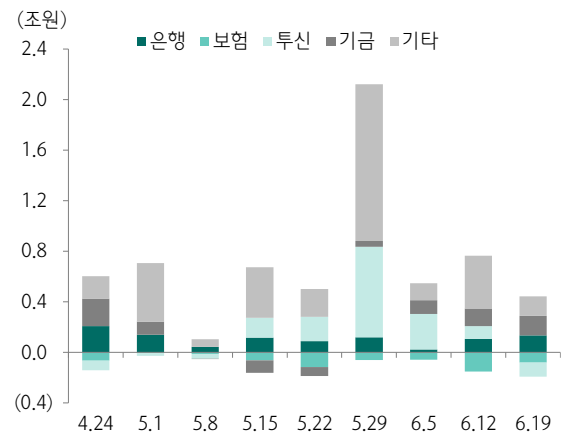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3. 투자자별 여전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4.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5. 발행사 긍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6.19 기준)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상향 검토			
긍정적	LG전자(AA0/종합가전)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파르나스호텔(A+/호텔)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A-/지주) 한진칼(A-/지주) 코스맥스(BBB+/화장품) 한진(BBB+/물류) 가나안(BBB/제조업)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A+/석유화학)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금호타이어(A0/타이어)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두산에너빌리티(BBB+/원자력)	엘에스일렉트릭(AA-/ 전기장비) 풍산(A+/비철금속)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파라다이스(A0/카지노)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금호타이어(A0/타이어)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A-/지주)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케이카캐피탈(BBB0/캐피탈) 한신공영(BBB0/건설) 티와이엠(BBB-/농기계)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도표 26. 발행사 부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6.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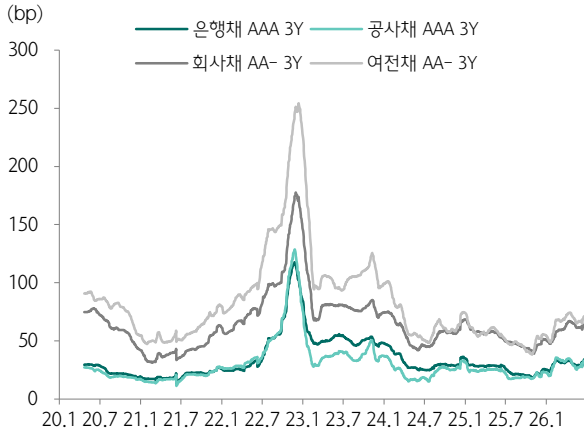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하향 검토	에스케이디앤디(BBB0/부동산개발)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에스케이디앤디(BBB0/부동산개발)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부정적	엘지화학(AA+/석유화학) 에스케이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롯데케미칼(AA-/석유화학)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무림페이퍼(A-/제지)	엘지화학(AA+/석유화학) 호텔신라(AA-/면세)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한국자산신탱(A0/신탱) 풀무원식품(A-/식품제조) 신한자산신탱(A-/신탱) 에스케이어드밴스드(BBB+/석유화학) 신원(BBB-/의류제조)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호텔신라(AA-/면세) 현대엘리베이터(A+/승강기)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A-/이차전지 소재) 한국자산신탱(A0/신탱) SK실더스(A0/보안) 대우건설(A0/건설) 여천NCC(A-/석유화학) 무림페이퍼(A-/제지) 대동(BBB+/농기계)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Ke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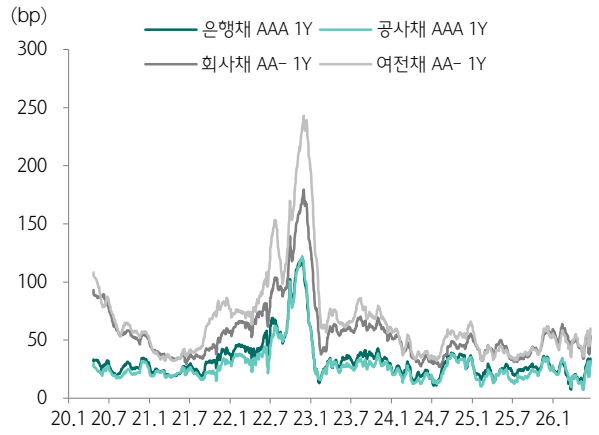
주요금리차(1)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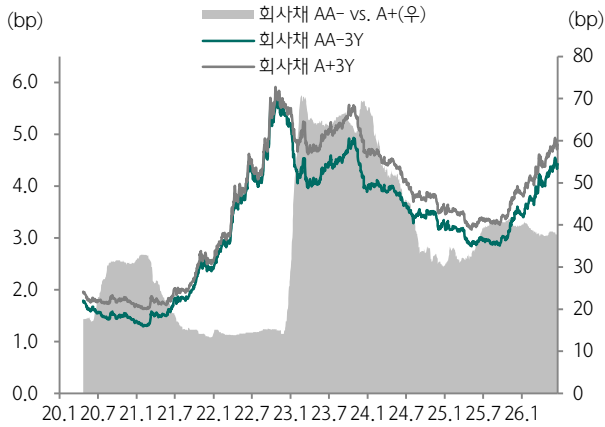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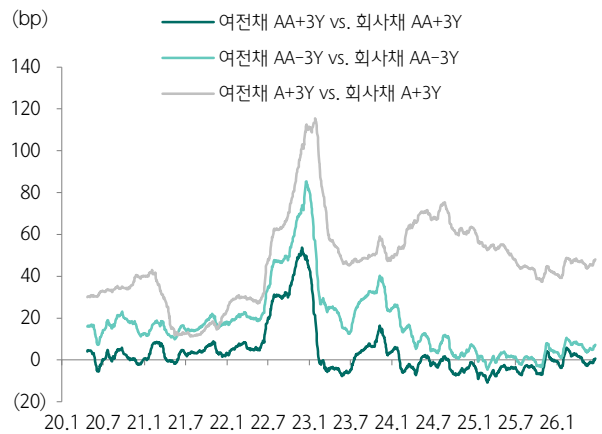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A+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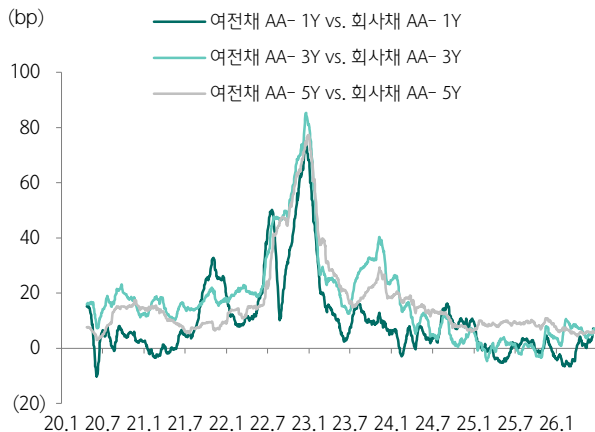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3Y/회사채3Y 스프레드 (AA+/AA-/A+)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1Y/3Y/5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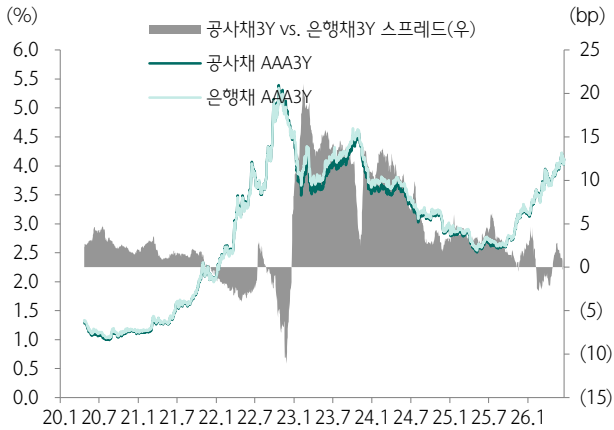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및 회사채 AA-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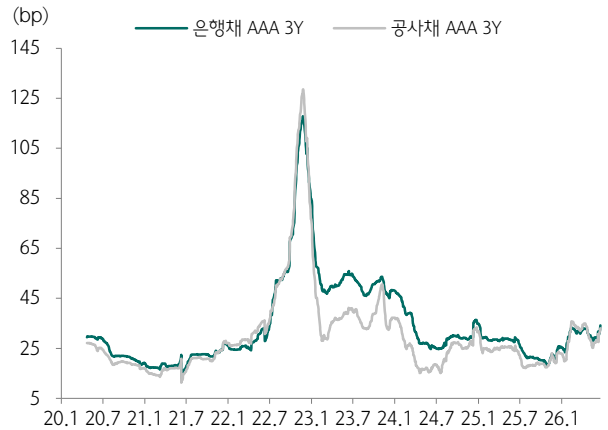
주요금리차(2)

특수채3Y/은행채3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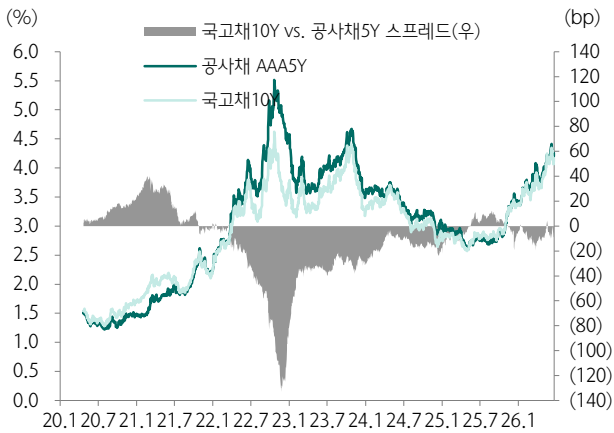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국고대비 Spread(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국고채10Y/특수채5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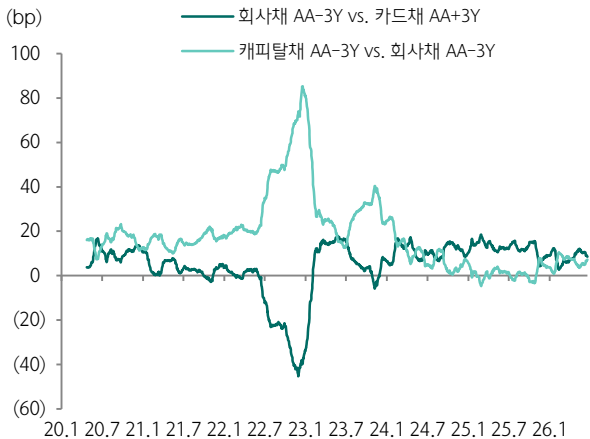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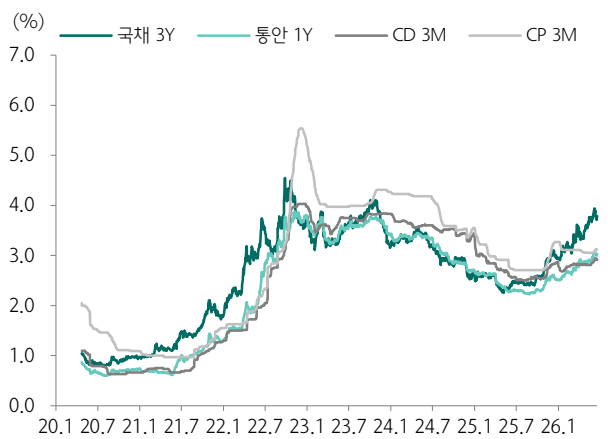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AA+/캐피탈채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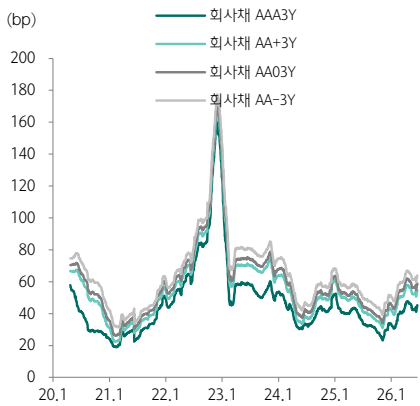
CP 3M/CD 3M/통안채1Y/국채3Y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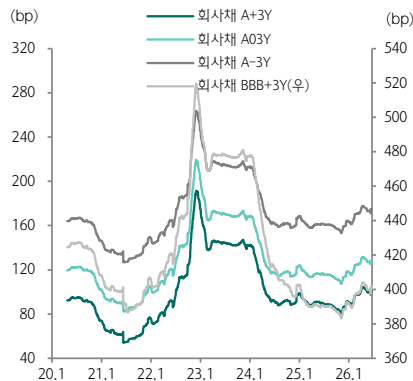
주요금리차(3)

AA등급 이상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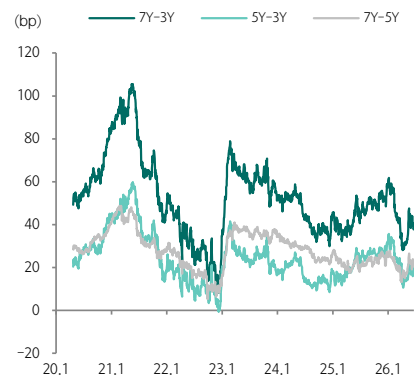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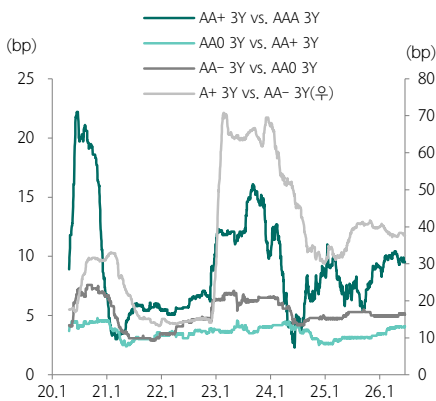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 장단기 스프레드(3Y/5Y/7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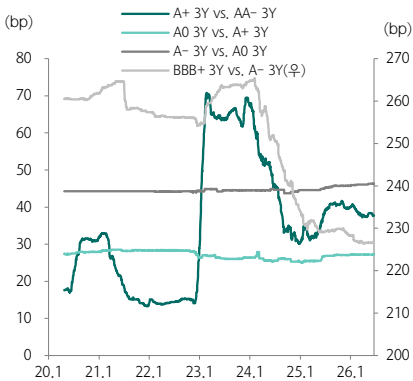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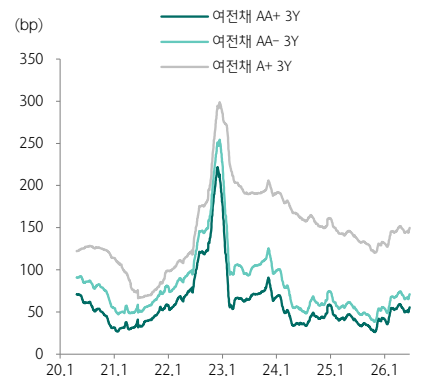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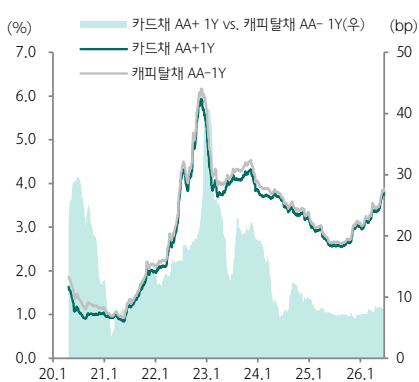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 3Y 스프레드 추이(A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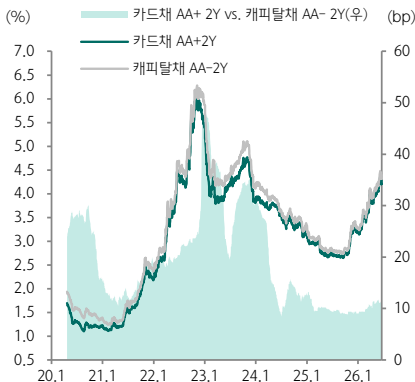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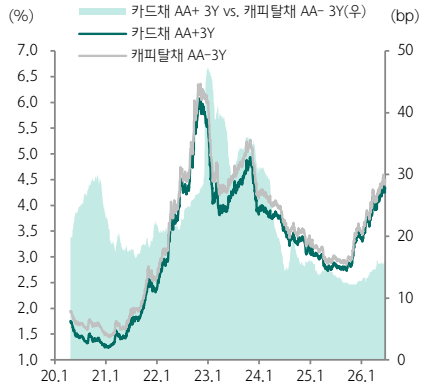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2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